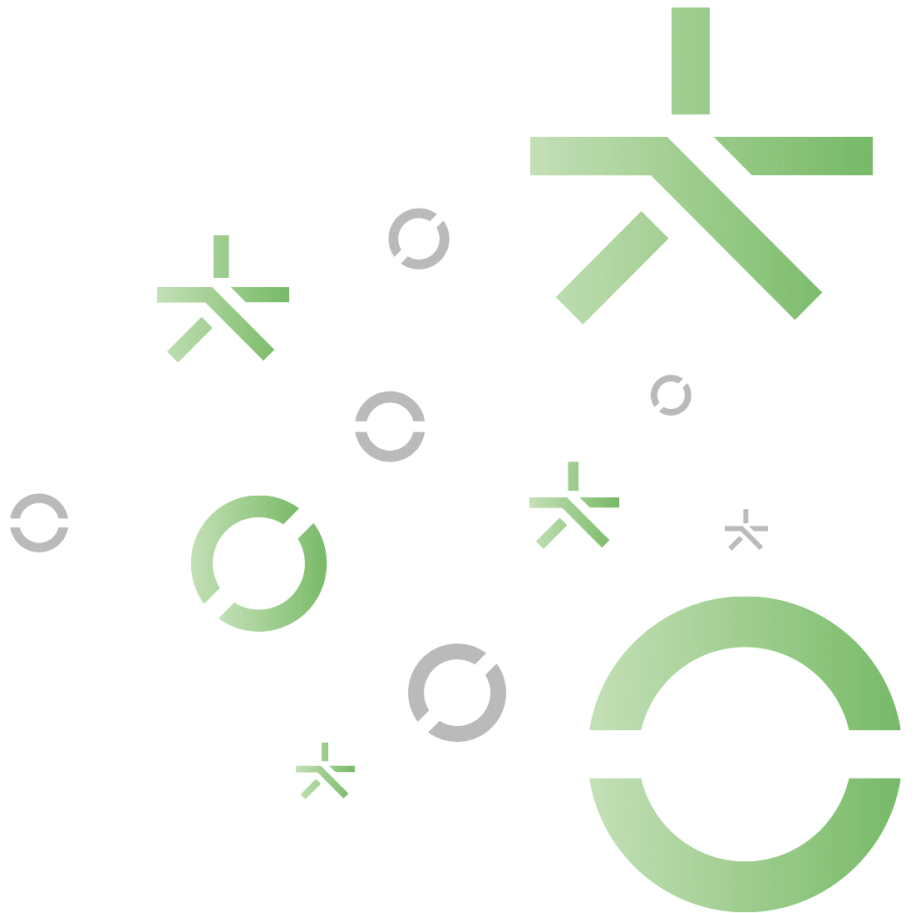


인천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: 국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

이정영



연구책임

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

연구참여

오수영 경제환경연구부 전임연구원

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
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1) 연구의 배경

- 지역 내 고용 확대, 세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
 - 기업의 수도권 내 이동은 활발하나, 인천은 상대적으로 전체 이동은 적고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상황임
 -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관련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인천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임
-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산업에서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함
 -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,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으며,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함

2) 연구의 목적

-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기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, 인천을 중심으로 기업이동에 관한 유형별 특성과 이동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
 -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조례상 포함된 기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,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동에 미친 요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검토함
 -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동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, 인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기업이전을 결정하는 정성적인 요인도 분석함

2. 인천시 투자유치 현황

- 인천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건설 수요 증가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2007년 이후 총고정투자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
 - 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건설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지식생산물투자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나, 인천은 여전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비중이 더 높음
 - 지식생산물투자는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투자가 필요함
-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서울,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며,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'정보통신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이 성장하고 있음
- 다만 인천 내 대부분의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부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역의 성장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
- 또한 수도권 규제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장 신·증설의 어려움이 있음
 -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적지 않아, 오히려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
- 수도권 내 지역들은 조례를 근거로 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하는 수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부족함
 -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지자체별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함
 - 인천도 조례를 근거로 기업지원제도가 있으나,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- 기업을 이전한 사례를 살펴보면, 보조금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이 기업 이전에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보임

3. 기업의 이동요인

1) 입지이동 현황

-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사업체의 이동 흐름을 살펴 보면, 유입보다는 유출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내 이동이 활발함
 - 인천의 연도별 사업체 수가 평균 16만 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평균 248개사 정도가 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동이 많지는 않음
 - 인천으로 유입 및 유출되는 지역을 살펴보면, 서울에서는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고 경기 및 비수도권에서는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종사자의 이동 흐름은 사업체의 이동 흐름과 유사하지만, 사업체 유출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종사자 유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임
 - 서울, 경기, 비수도권으로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특히 인천과 비수도권 간 유출되는 사업체 수 비중보다 종사자 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, 인천 내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체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임
- 업종별 사업체의 이동을 살펴보면,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활발함
 - 제조업은 서울에서는 유입되고 있지만 경기 또는 비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규모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유출되고 있음
 -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업체 규모 대비 종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, 종사자 규모가 큰 제조업체들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
- 그럼에도 정보통신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유입 높은 상황임
 -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업에 필요한 인력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
 - 다만 해당 산업이 인천 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

2) 입지이동 요인분석

-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, 수도권 내에서도 이동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며 서울은 수도권 내 이동과 비수도권 간 이동이 6:4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8:2로 나타남
 -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체 지역과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인천, 경기는 수도권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보다는 인천이 더 심한 것으로 보임
 - 서울은 전체 기업 중 비중이 제조업의 비중이 26%로 높지 않으나 인천과 경기는 70% 정도로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
- 인천을 대상으로 기업 이전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, 기업의 특성 변수에서는 기업규모, 업력,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여부, 제조업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특성 변수에서는 고속국도 비율, 공시지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과거에는 전통적인 입지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인력확보, 인프라 등 네트워크 자산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동에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 수도권에 입지를 결정한 제조업은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간에는 입지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
- 통계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파악하고자 네 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, 제조업은 요소비용이 중요한 반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제조업인 A기업은 넓은 공간 확보, 수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, 인력확보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, 수도권 내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B기업, C기업, D기업은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지역의 산업육성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함

4. 정책제언

1)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정책 필요

- 인천 내 규모가 큰 제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, 오히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 및 이동 형태를 고려한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
 - 현재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는 대단지 공장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,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임
 - 서비스업은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, 대규모 인력보다는 기술 기반으로 소수 인력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므로 현재 고용 규모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도가 기업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 - 또한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쉽지 않으므로 앵커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유치해서 지역 내 법인을 개설하여 다양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2) 지역 현안 중심의 사업 기회 확대

- 역량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, 이전한 기업의 지역 내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의 입지이동에서 전통적인 입지요인도 중요하나, 지역의 전략산업과 기업의 비전이 부합하여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
 - 그러므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관내 기업이나 관내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에게 우선권 또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 - 서울시는 컨소시엄 사업 모집 시, 관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기술 활용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
 - 또한 지역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협업 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

3)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

- 관내 운영되고 있는 투자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 -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영역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투자자문단, 투자진흥관 등을 임명하여 민·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
 - 투자기획위원회,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,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-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력양성과 공동연구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고용으로 주요한 산업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
 - 지역 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, 산·학·연 공동연구 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